

금강산 건봉사 금암대선사 부도 봉안식

승려의 신분으로 나라의 독립에 앞장섰으며 5차 염불만일회를 주도했던 금암당(금암의훈) 대선사 부도 및 공덕비 봉안식이 5일 금강산 건봉사(주지 해장)에서 봉행됐다.

이날 봉안식에는 보성스님(태고종 총정), 설산스님(정토사 주지), 법흥스님(원효종 총정), 법천스님(건봉사 노전) 등 건봉사에서 수학한 노스님들과 금암스님의 속가 아들 이영선씨를 비롯 만해스님의 유지를 따르는 금강갑계 회원 40여명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초파일 연합 봉축…한국불교 알릴터"

뉴욕 사암련 초대회장 효원스님



"뉴욕지역의 불교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종단은 다르지만 뉴욕에서 활동하는 한국불교 사찰과 스님들의 교류와 신도들의 친목을 도모하겠습니다."

불광선원, 한마음선원 등 뉴욕 소재 한국불교 10여개 사찰을 운영하고 있는 스님들이 지난달 9일 뉴욕 더글라스톤에서 결성한 뉴욕불교사암연합회에서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효원스님(상운사 주지).

스님은 "연합회는 뉴욕불교 활성화를 위해 한 몫 하겠다는 한국불교계 의지 표현이며 한인 1.5세, 2세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민사회 현실을 살펴,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포교를 전개하기 위해 구성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스님은 뉴욕의 한국불교계 사찰들의 살림살이를 튼튼히 하기 위해 초파일 연합 봉축 행사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불광선원에서 15일 '뉴욕 청년불교연합회'(가칭)을 구성, 정기모임을 갖는 등 한인사회의 청·장년을 위한 특별 포교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오종욱 기자

"이웃고통 풀어주는게 수행자"

이색봉축법회 여는 불심사 혜인스님



"실직 등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이웃사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냅시다."

부처님오신날 주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한마당. 서울 강북구 불심사 주지 혜인스님이 준비하고 있는 이색 '봉축법회'이다. IMF다. 경기부진이다. 부도다. 자살이다. 매일 속상할 일만 터지는데 법당에서만 봉축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민들에게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기를 회복시켜주는 것이야말로 국난극복 묘안을 찾을 수 있는 첫단계입니다."

스님은 국난극복을 위해서 이웃과 함께하기를 권한다. 실직 부도 등으로 자살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것도 교화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자책한다. 이웃의 고민을 풀어주고 마음의 안정을 갖게 해주는 것은 출가자의 본분이며 사회전체를 밝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님은 금년초부터 상담전화를 개설했다. 이번 주민과 함께하는 봉축법회도 상담활동에서 착안하게 됐다. 봉축법회는 귀빈식당에서 무료점심공양, 음성공양 등 축제한마당으로 펼쳐진다.

김중근 기자

조계종 재적사찰 갖기 김민종 무료 광고출연



불자 연예인 김민종씨가 재적사찰갖기 및 신도등록 캠페인 광고에 무료로 출연해 화제가 되고 있다.

김씨는 조계종포교원의 출연 제의를 흔쾌히 수용, 4일 승가사에서 1분30초 분량의 TV광고와 홍보포스터 촬영을 마쳤다. 신도등록을 권장하는 내용의 TV광고는 4월말부터 btn을 통해 1일3회 이상 방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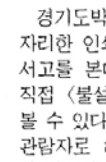
교차로

美 보림사 천불전 낙성식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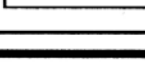
월서 조계종 초심호계위원장 스님은 미국 워싱톤 보림사 천불전 낙성식 대법회 초청법사로 초대돼 17일 출국한다.

보살계·육조종재 봉행



선곡 조계종 제13교구 지리산 쌍계사 주지는 1~3일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하여 보살계 수계 대법회와 정대불사, 육조봉찬회, 육조종재를 봉행했다.

오비구성상 봉안법회



자용 수국사 주지는 6일 '초전법륜상 및 오비구성상 봉안법회'를 봉행하고 우리나라에서 두번째로 오비구성상을 경내 대웅전 앞에 안치했다.

경찰청서 서도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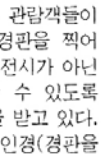
홍선 서울경찰청 경승실장 스님(흥국사 주지)은 3일 경찰청 법당에서 직원 78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도(書道) 강좌를 열었다.

'녹색공동체운동' 공청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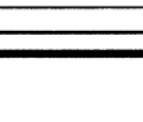
법륜 한국불교환경교육원장 스님은 10일 서울 흥사단 강단에서 크리스챤아카데미와 공동으로 '녹색공동체운동'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강화 적석사 주지 취임



선암 강화 고려산 적석사 주지는 12일 오후2시 주지 취임식을 봉행한다.

해광사 삼존불 점안식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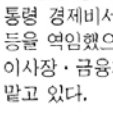
청해 대한불교 총화종포교원장 스님은 4일 대전 서구 용문동 해광사(주지 해광) 삼존불 점안식에 참석, '국난극복'을 주제로 법문했다.

공창복지관장에 취임



원천 통도사 포교국장 스님은 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이 운영하는 금곡동 공창종합사회복지관 제2대 관장으로 취임했다.

자비 목탁 달아주기 행사



혜은 혜은정사 주지는 5월1일 오전 9시 마포구 청기와 예식장 앞에서 제19회 '자비 목탁 달아주기' 행사를 개최한다.(02)338-2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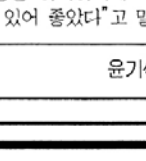
자비의 전화 8돌 기념법회



정덕 자비의전화 회장스님은 17일 오후1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강의실에서 8주년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에서 오숙희씨(방송인)가 '상담의 현실과 힘'을 주제로 강연한다.

대마도 명예도민 뽑혀



정영호 한국교원대 박물관장은 8~12일 일본 대마도의 명예도민으로 초청받아 도일, 면암 박지원비 보존 방안을 논의했다.

예술의 전당 이사장에

박성용 금호문화재단 이사장은 6일 예술의 전당 이사장에 임명됐다.

신임 박이사장은 미국 예일대 출신(경제학 박사)으로 대통령 경제비서관, 서강대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금호문화재단 이사장·금융개혁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전 前대통령 국태민안 100일기도 회향

전두환 前대통령이 8일 조계사에서 '국태민안과 선망부모 유주무주 고혼을 위한 1백일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회향법회에는 동국역경원장 월운스님, 조계종 前 포교원장 무진장스님, 신흥사 주지 노후스님 등이 동참했다. 전 前대통령은 작년 12월22일 출소해 30일 1백일기도를 입재했다.

"17년째 연등값 전액 장학금"

용화선원 주지 용화스님



17년째 연등수입 전액을 불우청소년들의 장학금으로 쾌척해 온 스님이 있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용화선원 주지 용화스님(임제종 종정)이 그 주인공.

스님은 17년 전 정룡장학회를 설립, 매년 성북구 관내 중·고등학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50여명의 소년소녀가장 및 모범 청소년들에게 1천여만원의 장학금과 기념품을 전달해 왔다.

스님은 "관차실라 5계와 육바라밀 보시정신의 실천을 통해 불교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생활불교로써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하게 됐다"고 밝히고, "80년대 초부터 신도들에게 연등비 대신 정룡장학회에 참여해 무주상보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리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공(功)을 불자들에게 돌렸다.

96년 관내 직능단체장을 비롯한 25명의 이사를 영입하는 등 장학회를 확대해 온 스님은 올해도 장학금 수여식을 18일 오후 4시 성북구 정릉3동 사회복지관에서 가질 예정이다.

한편 스님은 각 종교단체들이 수련관 및 복지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불교회관(삼보관)건립을 매봉산일대 2만5천여평의 부지에 추진하고 있다.

도필선 기자

"불경 직접 찍어 보세요"

Focus

경기도박물관 2층 문헌자료실 한 켠에 자리한 인쇄실습실. 해인사 장경판전 동측 서고를 본따 만든 이곳에서는 관람객들이 직접 〈불설부모은중경〉 등의 경판을 찍어 볼 수 있다. 단순히 보고 가는 전시가 아닌 관람자로 하여금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박물관의 체험코너로 각광을 받고 있다.

실습실 안에는 경판을 비롯 인경(경판을 찍어내는 일)에 필요한 갖가지 재료들이 준비돼 있어 관람객들이 안내문에 따라 경판을 찍어내면 된다.

안영석씨(43세·수원시 팔달구 매향동)는 "불자로서 경판 하나하나에 새겨진 공덕을 체험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윤기석 기자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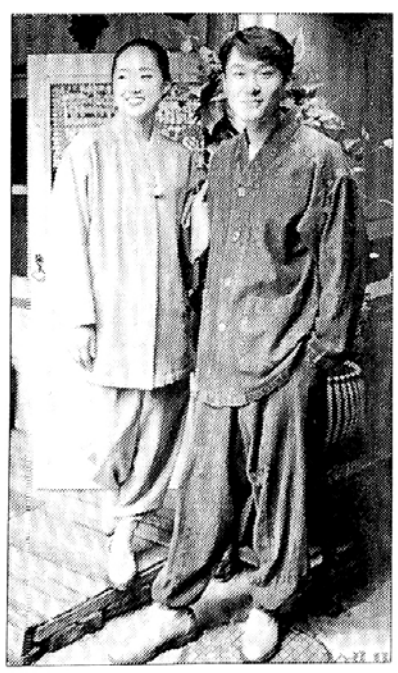
△개인 모금 총액 1,766,000원(47명) △한 주 한끼굶기 1,021,000원(62명) ●나진 선봉시 북녘 어린이 결연 △개인 결연 5,107,000원(76명) △서울대 인문대 87동기모임 100,000원 △청년정토 500,000원 △부산 선재회 30,000원 △정토포교원 아니룻다회 410,000원

(4월8일 현재 총 976,173,212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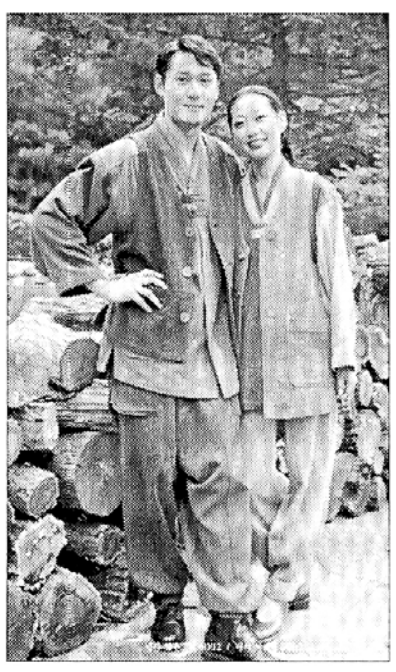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매월 첫째 토요일은 '한복입는 날입니다.'

민족의 멋 우리의 옷 예 맥 생활한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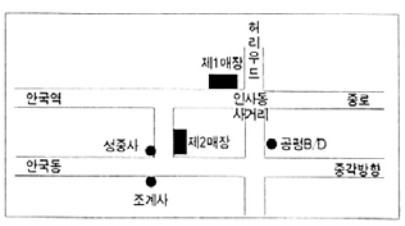


우리옷 "예맥"의 제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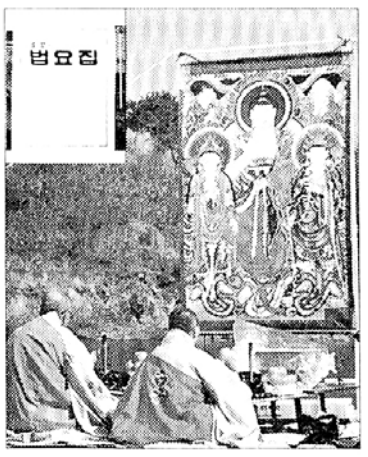
- 수준 높은 천연 염색 실크 제품
- 가벼운 소재와 전통미의 생활 한복 및 아동복
- 각종 연회 예복 제작
- 스님들의 간편복
- 신도님들의 단체복, 기도복 제작
- 기타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원하시는 대로 제작해 드립니다.

본 사 : 조계종 포교원 앞 위치
직 영 매 장 : 인사동 4거리 위치
전국대리점모집 : 佛子로서 본찰 주지 스님 추천서 요
※ 판매책임자 구함(여 30세 이상 불자)

본 사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19(원당BD 202호) (株)예맥 어패럴
전 화 : 737-0804~6 팩스 : 723-4599
제1매장 : 서울 종로구 인사동 1-4번지 ☎ (02)723-4600
제2매장 : 서울 종로구 견지동 68-1 ☎ (02)738-3939



다중용 법요집 및 괘불



〈 괘 불 〉
- 규 격 : 높이 7자, 폭 4자 5치
- 특 징 : 방수완벽, 조립간편
- 가 격 : 90만원(괘불대 포함)

▶ 괘도내용 : 법회식순과 찬불가, 기초교리
감 수 : 암도 큰스님

佛教布教資料院
서울特別市 龍山區 厚岩洞 195-6
電 話 : (02)772-9052, FAX : (02)755-0479
(02)672-1333, 723-4599